

도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가' 등급

'2016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외투기업과 행정 간 부단한 소통 통한 애로사항 해결에 높은 점수

전북도는 '201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분야에서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국정 주요시책 등의 통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평가는 KOTRA 내 '외국기업고충처

리단'에서 도내의 외투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내용을 제도개선, 행정처리, 자체처리 유형별로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평가한 값으로 타시·도에 비해 외투기업 수가 부족한 가운데 얻은 평가여서 그 의미가 크다.

도는 그간 외투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 및 KOTRA와

연계하는 간담회를 실시, 법규 및 행정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행정을 펼치는데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는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R,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 등과 함께 기존에 자리 잡은 기업들의 사후관리를 통해 공장 증설, FDI신고, 도

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우리 도가 타시·도에 비해 SOC기반과 열악한 정주여건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도 전부를 선택한 외투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외투기업과의 간담회를 실시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박 대통령 "노동개혁 동참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지금 곳곳에서 조금씩 결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더욱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저성장·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라로 함께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면 경제의 역동적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산업 진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 관련해서는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가치관과 바른 역사관을 갖고 각자의 재능을 찾아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 말했다. /뉴스



민족농업 전진대회 지난 12일 순창 삼진강 군민 체육공원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에 송하진 도지사, 황숙수 순창군수, 조상규 전북 도연맹회장 등 참석자들이 소개되고 있다.

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대상 29건 결정

7차 심의에서 총 28억원 규모... 이자 1~2%

전북도가 도내 농림수산 발전을 위해 2,000억원을 지원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심의회(위원장 김일재 행정부지사) 7차 심의를 거쳐 29건 28억원의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대상을 결정했다.

올해 6차 심의까지(6월말) 80건 93억 원에 이어 이번 결정으로 총 109건에 122억 원이 지원된다.

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어업의 내·외 경쟁력 강화로 돈 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해 지난 1993년 조성되었으며 그간 농민의 소득기반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조성액은 228억 원으로 농협과 협약을 통해 2,0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농어업인은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을 통해 용자를 받을 수 있으며 1~2%만 농·어업인이 부담하고 1.95%~2.95%는 기금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융자대상사업은 ▲농수산물 가공생산물 사업, ▲농수산물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회생 사업, ▲농어업 경영안정 사업 등으로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중 언제든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운영자금·경영회생자금은 1억원(법인 3억원), 시설자금은 2억원(법인 5억원) 한도로 연리 2% 조건이나 매년 1억 원 이상을 출연하는 시·군은 1년간 연리 1%가 적용된다.

도는 현실성이 떨어진 용자 한도액을 높이고, 40세 미만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1년간 무이자 용자를 적용하는 '전북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기금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어인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올해 미꾸라지 115만마리 방류

오늘 남원시 요천·내일 익산시 함열천·장수군 금강에

전북도가 올해 미꾸라지 치어 100여만 마리를 방류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라져가는 토종 미꾸라지 생태계 복원과 모기퇴치를 위해 어린 미꾸라지 11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은 지난 6월 1차로 고창군 주진천에 치어 31만 마리를, 지난 12일 정읍시 정읍천에 어린 미꾸라지 30만 마리를 풀었다.

오는 16일에는 남원시 요천에 14만 마리를, 17일에는 익산시 함열천과 장수군 금강에 각각 20만 마리를 각각 방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류한 미꾸라지는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특허 등록된 '미꾸라지류

대량인공 종묘 생산방법'에 따른 양식 기술로 생산됐다.

산란기에 성숙한 어미로부터 인공배란 과정을 거쳐 수정란을 확보해 부화시킨 뒤 약 65일간 사육관리를 통해 4cm 이상 키운 건강한 치어다.

연구소는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통해 자연 생태계 복원과 해충 방제, 농가소득 증진이라는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미꾸라지는 하루에 모기유충을 1,100마리 이상 잡아먹는다"며 "향후 2년 정도면 성장해 1억8,000만 마리 가량의 농어업인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고창 신림면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사업' 선정

2017년까지 총 20억원 투입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2016년 생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인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사업은 2개년도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림면 법지리에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림면은 전통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예교육과 체험, 한옥 구들장을 활용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신림 법지마을은 유교인 경당 신사범 선생 경당 사교 집을 1,200여권 보유하고 있고 민족종교 유물선합일경정유도인 전국 최다 거주(20가구 80명)지역이며 유교민사상을 계승한 최익현, 고석진 사당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기본계획부터 자원 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으로 한국 속의 한국! 명품 고창에 맞는 전통관광 자원 개발과 이를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통일은 우리의 목표인 동시에 과정"

통일 토크쇼 열려...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해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통일 토크쇼가 전북 전주에서 열렸다.

15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통일은 과정이다' 주제로 통일 토크쇼가 열렸다.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크쇼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정동영 국회의원,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토론자로 나섰고, 약 300명이 참여했다.

이날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 이사장은 "통일은 우리의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다"라며 "남북이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적으로 삼으며 압박과 제재로 반목과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포용해야 한다"라며 "이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시민들이 나서야 하며, 시민의 힘으로 정부가 올바른 대북정책을 펼쳐 남북관계를 개선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여름방학 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도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